

청년들 고민 종단이 함께 나눈다

(취업 결혼 출산)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결의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서 의견 모아

사찰은 소통 공간으로...
지역별 대안학교 설립 등
종도들 의견 수렴해 추진

관련기사 2~3면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참가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위해 미래세대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공주 한국문화원수원에서 열린 2차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종단 집행부와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선원·율원·강원·비구니 스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신도교단 대표 등 사부대중 108명이 참가했다. 특히 2차 대중공사가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삼국동 서울지부장, 김태현 대전지부장 등 대학생 불자들이 대중공사 참관인으로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중공사의 의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를 단순히 포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교가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것인가 고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지난 24일 2차 100인 대중공사는 ‘(가칭)미래세대위원회’ 발족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 사진은 지현스님이 카페티지로 진행한 ‘절에 가면 재미없어, 맨날 혼만 나’ 주제 난장.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정됐다.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입재식에서 2차 대중공사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공사 발원문을 낭독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절에 가면 재미없어, 맨날 혼만 나’ 애타미 바글바글한 절! 왜 일까?’, ‘중2병을 스님들은 아실까’, ‘불교, 미래를 위해 이것만은 버리자(휴지통)’, ‘나

게 100억이 생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갑일병, 왜 법당에 가나’, ‘내가 포교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20대와 나누는 20대 이야기-20대 바로알기’, ‘사찰,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교세대를 위한 희망의 끝단지’ 등 8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별 난장에 이어 가진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대중공사를 계기로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시켜 미래

세대와 직접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발족은 앞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와 사찰의 역할을 위해 △지역별 특성화된 불교대안학교 설립 △미래세대를 위한 불교 역할 강화 △사찰 공간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 및 소통, 활용의 공간으로 재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종

단에서)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스님들과 학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길게는 1년 정도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차 대중공사는 오는 3월25일 공주 한국문화원수원에서 ‘사찰 재정투명화’를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염태규 기자

‘실크로드, 빛나는 불교문화’
불교중앙박물관 강좌 개설

국제도로망이라 불리는 실크로드에 꽃핀 찬란한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강좌가 마련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엄스님)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14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정동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실크로드, 빛나는 불교문화’를 주제로 제7기 불교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에는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오윤희 전 고려대장경연구소장, 김혜원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학에서,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 한동수 한양대 교수, 조성금 동국대 박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홍디영 기자

총장 대행은 경영부총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신입 이사장으로 일면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성타, 일면, 삼보, 명신, 심경스님과 안재찬, 이연택, 김선근 이사는 지난 23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성타스님을 임시의장장으로 회의를 열어 일면스님을 차기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일면스님은 이 자리에서 “학교 교직원 이사 스님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임기는 오는 3월12일부터다. 그러나 신입 이사장을 선출한 회



의가 이사장 정런스님의 급작스런 폐회 선언 이후 8명의 이사가 중심이 돼 속개된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9명의 이사가 서명해서 올린 이사장 해임의 건을 두고 정런스님은 “3월11일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사장 해임안건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를 선언한 뒤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 선출
3월12일부터 임기 시작
학교 정상화 여부 분수령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8명의 이사들은 ‘이사장 스님의 일방적인 폐회선언’에 반발하며, 성타스님을 임시의장장을 선출하고 289회 이사회를 속개해 신입 이사장으로 일면스님을 선출하고 폐회했다.

한편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총장 후보자 논문표절과 관련해 학교 측에 중징계 요청한 것은 갑론을박 끝에 이뤄졌다. 성타스님 등 일부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와 객관성 결여를 이유로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영담스님은 표절 관련 징계는 끝까지 따뒀아 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정런스님

은 “징계의 건과 총장 선임의 건은 따로 따뤄질 수 없다”며 두 안건 모두 연기했다.

이와 함께 2월28일 총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입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부총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삼보스님, 영담스님, 김재기 전 외환은행장을 추천했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개방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은 “조계종 중립학교관리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로 넘겼다.

여현경 기자 esnald@bulgyo.com

포항 보경사 적광전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지난 23일 포항 보경사의 금당인 적광전(寂光殿)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조선 숙종 3년(1677)에 중창한 것으로 추정되는 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3전 3칸, 측면 2칸의 다폍게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둥을 받치는 부재인 초석과 기둥 하부를 가로로 연결하는 부재를 받치는 부위인 고막이 등은 전형적인 통일신라기 건축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전면에 남은 신방석(信防石)이라는 문기둥 밑에 놓는 부재 반침돌 또한 신라시대 옛 부재를 사용해 중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방목(信防木)에 조각한 사자상이 국

내에서는 유례가 드물고 조각이 정교한 점을 들어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신방목은 보통 둥글게 만들고 태극문양 등을 새기는 데 비해 적광전에는 사자를 조각했다.

아울러 일면적으로 다폍게 맞배지붕 건물에는 측면에 공포를 두지 않지만 적광전은 예외적으로 측면에도 공포가 있다. 또 다폍게임에도 우물반자(우물 정(井)자 모양의 천장)를 설치하지 않고 서까래를 그대로 드러낸 등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보경사는 신라 진평왕 25년(602)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명스님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홍디영 기자 hong12@bulgyo.com

■ 새연재 ‘진영에 깃든 선사의 삶과 사상’

11면

벽산당 원각근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추천하면서

해인총림 방장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해인사 산중총회가 3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벽산당 원각근스님을 차기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고 해인사 산중대중의 열원을 모은 벽산당 원각근스님 해인사 방장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대중 앞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1. 원각근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기로 하는 이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범보살지이며, 모범적인 총림인 영과 교육도로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었습니다. 또한 해인사는 그동안 해인사 산중의 각 문종과 재적승들이 개방적이고 원용적인 산중운동을 해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스님들이 해인사를 의지해 교학을 연전하고 참선 정진 해왔으며, 대다수 스님들이 해인사를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해인사는 ‘해진사(해가 진 사찰)’라는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청백가풍의 오랜 전통은 사라지고 세속적 풍조가 만연하는 사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뜻있는 수좌들과 학인들은 더 이상 해인사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됩니다. 해인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방장스님 측근에 의한 친형제제와 원용화합제 폐기, 독실이운역, 대규모 남불사원 등 각종 수익사업 추진, 선원 임명자를 선별하여 받는 절일명 ‘조리집 방부’, 해인사 선왕장이 남궁사찰등(고불암, 도량사, 미타원의 주지)를 겸임한 수익 사업에 전념하는 현 해인사 선왕장이 경제기간에도 수시로 외부출입을 자유로이 하면서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최고급 외제차(BMW 7시리즈, 아우디 A8, 폭스바겐 투아겐, 포르세 카이엔)를 운행하면서 해인사 세속화에 앞장서는 점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새롭게 총림의 방장스님을 모셔야 하는 해인사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해 총림 방장스님을 모시기 못한다면 해인사는 특정한 ‘독실’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세속적 사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 이사에서 언급한 해인사를 망치고 있는 병폐를 뿌리 뽑는데 앞장 설 분은 누구입니까?
- 해인사의 청백가풍 회복과 선풍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대중을 이끌어갈 분은 누구입니까?
- 해인사의 많은 문종과 재적승들을 원용으로 화합시켜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 범보살철의 명성에 걸맞는 불교학의 중추적 역할을 조성하고 숭고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벽산당 원각근스님 해인총림 방장 추천위원회와 해인사 재적승들은 이러한 해인사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각근스님이라 생각합니다. 원각근스님은 근대 한국 불교의 큰 봉우리인 융성, 인곡, 해암 전 조계종 종정스님의 법맥을 이어온 제자로, 1967년 해인총림 동안계를 시작으로 평생을 수선남자로 살아오신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출가 이후 50년 가까이 가사선과 해인사를 떠나지 않고 정진해 오신 분으로서 누구보다 해인사의 수행가풍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해인총림 유나 직책을 십 수년째 수행하면서 총림 화합운명을 기여했으며,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공동대표로서 선풍진작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온화하여 조주가풍을 펼치시는 분으로 총림대중과 해인사 재적승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해인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2. 대원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대원근스님께서 훌륭한 선 지도자임은 널리 알려진 분이지만, 아쉽게도 1970년대 초 해인사선원에서 몇 안가을 사신 이후에는 한번도 해인사에서 시가나 소인으로 기여하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님께서는 해인사의 가풍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시며, 많은 문종과 재적승을 화합으로 이끄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해인사는 그동안의 직책

를 뿌리 뽑고, 세속화 된 ‘독실’ 체제를 끝내고, 정법에 입각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원스님을 추천하고 응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동안 해인사를 망쳐왔던 당파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이기기 위해 도다시 대원스님을 추천하고 응임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30년 가까이 성철스님께서 해인사 방장으로 계셨고 조계종 중정을 겸하면서 많은 역적을 풀긴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스님들의 사주와 한인이 담지하여 전국 곳곳에 사찰을 심 수 개백 건립했는데, 이러한 사찰들을 종단이나 해인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의 백관제단법인을 만들어 거기에 등록받아 탈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 이사장 스님이 대원스님을 해인총림 방장으로 모신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해인사 산중총회에 주도적으로 개입합니까?

이처럼 평소 해인사를 망치고 있다고 지탄 받는 스님이나, 종단과 무관한 별도의 재단법인 사찰을 관리운영하는 스님이 대원스님을 방장으로 응임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우리 해인사 재적승들은 대원스님을 해인사 방장으로 모시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대원스님께서는 20년 넘게 사설사람 ‘학림사(대진사 소재)를 최근까지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백히 중한중법을 위반했습니다. 3개월 전 2014년 11월에야 조계종종단에 학림사를 등록했습니다. 20년간 종단등록을 위반하다가 왜 최근에 등록했을까요? 여7에 많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대원스님께서는 2013년 4월에 조계종 원로회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당시 중앙종회의 자격심사는 학림사가 ‘대학회 소속’이라 하여 통과되었지만 그 역시 학림원이 발하졌습니까(그동안 학림사의 20여 필지의 토지 및 여러개의 건물들은 대다수가 대원스님의 개인 명의로 되어있고, 일부 건물이 일의 단체 ‘대학회 학림사’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림사는 재단법인 대개회는 무관하다는 재단법인 대개회의 공식성명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원스님의 원로의원 선출과정에서 종단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원민주

요에 의한 원로의원 자격박탈까지 논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원스님을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모시기에는 해인사 재적승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원각근스님을 해인사 산중총회에서 어떻게 합의 추천할 것인가

우리가 원각근스님 해인사방장추천위 스님들은 법전 방장스님이 임직 하신 직후부터 후임방장 추천문제는 48재가 끝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합의되 요청했고, 산중의 각 문종과 중진들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산중총회를 통해 합의되 대제하고 48재 기간 내내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과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방장스님의 다비신이 끝나고 사리를 수습하면 때부터 현재 대원스님을 방장으로 응임하고 자하는 추천위원회 대표 몇 명의 스님들과 해인사 선왕장스님이 비밀리에 대원스님 방장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48재 기간 중에 해인사 선왕장이 주도하여 비밀리에 방장후보 대장사들을 선출하고, 손사를 정하고, 임기까지 결정하는 서명문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8재가 끝난 당일(2월 9일) 저녁에 이 사실을 발표하여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대중들에게 사전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의 뜻과 권한을 몇 사람들이 사전에 찬탈하고 왜곡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8재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침오하게 말사 주지스님들과 재적승들, 그리고 바구니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원스님추천위원 수락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지지서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일반법륜조도 아니고 후보선출 권한 당사자인 산중총회 구성원들에게 지지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게 하여 서명에 서명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전 선거운동으로서 해인사 산중총회를 과월된 선거판으로 돌아가는 불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종회에 추천할 총림방장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공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교유의 방식으로 한다”

이것이 방장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제2조의 내용입니다. 즉, 방장 후보선출은 산중총회를 열어 공의를 모아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여에에도 후보보통을 열어 선거판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산중총회 구성원이 합의 추천한다는 것이지, 몇 사람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후보를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앞장서면 더욱이 대중들은 외면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인사 산중총회를 선거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해인사 선왕장 스님과 ‘대원스님 방장추천위’ 스님들입니다.

해인사 산중총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산중총회를 과월된 선거판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반드시 여법한 산중총회를 통해 심판할 것입니다. (과거 총림의 방장을 추대하는 절차가 총림 총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산중의 중진스님 몇 분이 종단의 중법에 방장을 추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2000년 대 들어 관련 총림이 정비되면서 전국의 모든 총림이 해당교구의 산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총회에 방장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오늘날의 시대는 한국불교에게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필요한 가치와 내용을 해인사가 마련하고 창출해야 한다는 비대한 책무감을 가져야 할 때이며, 해인사가 이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노력하는데 해인사 재적승들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원각근스님 방장추천위원회’ 스님들과 해인사 재적승들은 이러한 비대한 각오와 원력으로 원각근스님을 해인사 방장스님으로 모셔서 해인사를 정상화시켜주고 한국불교가 크게 중흥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시길.